**왜 십자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19절>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간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12:13).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아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체코와 한국 아이들과 어른들이 합작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물은 여러분이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 조금씩 다른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여기에 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제 이 본격적인 그림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체코공동체 꼴라즈 목사님이 준비하신 설교문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짧은 설교였지만 종려주일에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잘 정리된 설교였습니다. 먼저 그 설교 내용을 잠시 나누고, 거기에 덧붙여 몇 말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도 치료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도 용서해주셨어요. 심지어는 며칠 동안 죽어 있던 사람도 살려내셨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주실 바로 그 메시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희망을 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관리들이 어디에나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간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신들을 믿었고 그들만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요. 또한 외국에서 여러 좋지 않은 관습들을 들여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인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했지요: 예수님이 우릴 도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면 로마인들을 쫓아내는 것쯤이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에도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 보니, 드디어 로마인들을 쫓아내시려는가보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어 그분이 왕이 되시겠지. 그럼 드디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비싼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종이나 군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죠. 그 시대의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새끼를 타셨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대단한 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향해 흔들기 시작했어요.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 드렸어요. 사람들은 보통 왕을 위해 카페트 같은 걸 준비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대부분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자주 쓰곤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죠? 예,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위대한 왕이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전쟁도 없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매우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슬퍼졌고 많이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왕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분명 왕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칼이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폭력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구요? 기대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부활절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른 부활절이 와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빨리 듣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 안에 제대로 품으려면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로 나아가는 길에는 고난주간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런 새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은 근교의 베다니 마을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삼남매, 곧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 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히 퍼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후에 스승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계산이 빠릅니다. 바로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다 하니, 삼백 데나리온이면 그녀의 일 년치 연봉, 오늘날로 치면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고액입니다. 아마도 그 고급향유는 마리아가 자신의 혼수품으로 준비해두었던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돈 2천만원이 그렇게 한 순간에 공기중으로 날아가버렸으니 유다가 화를 낼 만도 합니다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 공동체의 재정 담당이던 그는 자주 그 돈궤에서 몰래 돈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후에 그는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아넘기는데, 1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하므로, 결국 마리아의 향유에 1/3 가격에 주님을 팔아넘긴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다의 말처럼 마리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할 돈을 예수님 개인을 위해 낭비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왜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그녀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어 무덤에 뭍혔던 그녀의 오빠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라 생각했던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바로 가서 고쳐주시는 대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지만 그 중 어떤 이는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셨는가? 이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쉽게 결론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그 무능력한 하나님은 나도 더 이상 필요없어.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절망과 죽음의 대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윽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를 고쳐줄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활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을 휘감고 있던 천들이 다 풀어지듯, 그 부활 체험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길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할 정도로,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며칠 지나지 않아 돌변하고 맙니다.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무리 중 상당수가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 속에 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허무하게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예루살렘 성의 화려한 왕좌를 차지하는 대신, 극악무도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기대와 열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된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땅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해가 주어질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눈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여 권력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 50년마다 모든 노예와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구약의 희년 규정을 강제로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사회의 정의와 평화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부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주인과 노예간의 계속적인 권력투쟁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심에 기반한 이 역사의 톱니바퀴가 박살나지 않는 한, 권력자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코에 살면서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지길 원했던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사람 안 보면 되는 일이라고, 그 관계를 끝내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같은 상황이 다시 생겨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는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과 생업을 버려두고 삼년이나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 뭐 한 자리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분을 따릅니다. “주님, 제가 잘 돼야 당신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니까요.” 예, 그 마음이 아주 거짓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미움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듯 하던 우리는 이 십자가 근처에서 자주 주춤거립니다. 때로는 본색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목숨을 지키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9:24)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죽는 길 같지만 실제로는 사는 길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많은 문제와 불행들은 사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과 교만과 미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 행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생명수는 예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실 때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저멀리 홀로 걸어가시는 듯한 주님을 향해 우리는 소리쳐 질문합니다. “주님, 왜 십자가입니까? 나를 버리고 꼭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내가 가는 길로 초청한 것이다. 힘들겠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지 않겠니? 오직 그 길만이 너 자신과 네가 만나는 이들을 참 자유와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랬기에, 만약 그분이 멋진 백마나 흑마를 타고 위풍당당 들어오셨다면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했을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득을 얻거나 한 자리 차지하려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 속에 우리 자신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언지 잘 아시면서도, 어느 순간 주님은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의 언덕을 오른 어린 나귀처럼,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채워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